

“액션도 할 수록 느네요”

넷플릭스 '지옥' 김현주

“연상호 감독님이 ‘지옥’ 시즌1을 촬영할 때 제가 뛰는 걸 보시고 ‘뭘까?’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즌2에서 뛰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많이 바뀌어 놀랐다고 하셨어요.”

지난달 25일 공개된 ‘지옥’ 시즌2에서 김현주는 몸을 날리는 액션 연기로 또 한 번 박수를 받았다. 다수의 상대와 맞서 싸운 뒤 도망치는 상대를 차량으로 추격하는 장면, 후반부를 장식한 1대 1 액션 장면 등이 눈길을 끌었다.

30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김현주는 “처음 ‘지옥’ 촬영을 할 때 아무런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액션 연기를 시작해 큰 도전이었다”며 “저 자신을 고찰하

‘첫사랑’ 이미지 벗고 첫 장르물 도전
영화 ‘정이’ 이어 세번째 액션 연기 도전
부담함 맞서는 인물... “몸 쓰는 연기 보람

는 계기가 된 작품인 것 같다”고 털어놨다.

1990년대 말 하이틴 스타로 출발한 김현주는 주로 로맨스 작품의 여주인공을 연기하며 첫사랑 이미지가 강했다. 하지만 어느새 ‘지옥’ 시즌1(2021), 영화 ‘정이’(2023)에 이어 ‘지옥’ 시즌2까지 세 번째 액션 연기를 선보이며 변신에 성공했다.

“저는 장르물 도전이 ‘지옥’에서 처음이었어요. 액션 연기를 처음 할 때는 너무 어렵고 무겁게 느껴졌는데, 하다 보니 늘더라고요.”

다만 액션 연기가 ‘지옥’ 시즌2에서 김현주가 보여준 전부는 아니다. 암울한 ‘지옥’의 세계에서 여러 인물이 각자의 사상과 신념을 앞세우며 이익만 쫓는 동안 김현주가 연기한 민혜진은 유일하게 인간적인 가치를 지키려 애쓴다.

‘지옥’은 유령과 같은 형체가 갑자기 사람들 앞에 나타나 죽을 시간을 ‘고지’하고, 이후 괴생명체들이 나타나 통보받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불태워 죽이는 ‘시연’이 잇달아 발생하는 판타지물이다.

고지와 시연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사이버종교 ‘새진리회’와 폭력집단 ‘화살촉’은 고지받은 이들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박해하는데, 이런 부당한 폭거에 맞서는 인물이 민혜진이다.

시즌1에서 민혜진은 새진리회에 맞서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어머니를 잃는 등 고초를 겪지만, 고지받은 갓난아기를 시연에서 구해내며 희망을 본다. 시즌2에서도 민혜진은 시연으로 죽었다가 부활한 박정자(김신록)를 새진리회의 손에서 구해 가족의 품에 돌려보낸다.

민혜진은 시즌1과 시즌2 결말에서 누구도 피하지 못했던 시연 또는 죽음을 빚겨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해 김현주는 “인간의 의지나 자율성으로 (고지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오는 2027년 데뷔 30주년을 맞는 베테랑 배우이지만, 시즌제 드라마에 출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시즌2가 제작됐다는 건 그만큼 시즌1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라며 “시즌2에도 출연할 수 있어 배우로서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옥’ 시즌2는 뒷이야기를 궁금하게 하는 결말로 시즌3 제작에 대한 기대감을 낳았다. 민혜진은 원하던 목표를 달성했지만, 그가 만든 조직 ‘소도’를 떠나면서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시즌3 제작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현주는 시즌3 제작 가능성에 대해 “감독님이 보는 사람이 생각할 여지를 남겼지만, 다음 시즌을 꼭 염두에 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다음 시즌 출연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는 아마 이제 나오지 않을 듯하다”며 “만약 시즌3을 제작하더라도 세월을 건너뛰어 새로운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김현주는 액션 연기를 계속 도전할 의향도 내비쳤다. 그는 “기회가 되면 또 할 것 같다”며 “완전히 다른 장르나 캐릭터였으면 좋겠다. 몸을 쓰는 액션 연기는 몇 달에 걸친 준비 과정이 있어서 성취감이 있고 훈련하는 과정도 힘들지만 재미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류승룡표 코미디’ 통했다

영화 ‘아마존 활명수’ 개봉 첫날 관객 1위



배우 류승룡과 진선규 주연의 코미디 ‘아마존 활명수’가 개봉일 9만명에 가까운 관객을 모으며 1위로 출발했다.

31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아마존 활명수’는 개봉일인 전날 8만8000여명(매출액 점유율 35.1%)의 관객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김창주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양궁 선수 출신 진봉(류승룡 분)이 뛰어난 활 솜씨를 가진 아마존 원주민 세 명을 서울로 데려와 양궁 훈련을 시키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그린 코미디다.

‘극한직업’(2019)에서 호흡을 맞췄던 류승룡과 진선규의 연기로 호평받지만, 영화 속 유머 코드가 시대에 뒤진 느낌이라는 부정적인 반응도 나온다. 실 관객객 평가를 반영한 CGV 골든에그 지수는 84%다.

지난 23일 개봉 이후 1위를 달려온 할리우드 액션 블록버스터 ‘베놈: 라스트 댄스’(‘베놈 3’)는 전날 6만4000여명(27.2%)이 관람해 2위로 밀려났다. /연합뉴스

BTS ‘RM’ 다큐 90개국서 개봉

솔로 2집 제작기 8개월 담아... 12월 5일 오픈

그룹 방탄소년단(BTS) RM(본명 김남준·사진)의 솔로 앨범 제작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전 세계 극장을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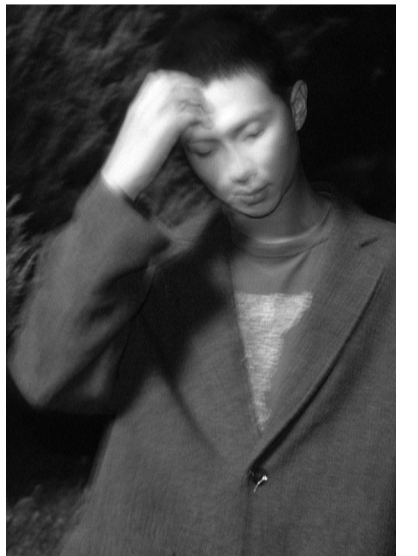
30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다큐멘터리 영화 ‘RM: 라이트 피플, 롱 플레이스’가 12월 5일 한국을 비롯한 세계 90개국에서 정식 개봉한다.

RM은 이날 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화 메인 포스터를 게재하며 영화 개봉 소식을 알렸다.

이 영화는 RM이 솔로 2집 ‘라이트 플레이스, 롱 플레이스’를 완성하기까지 약 8개월의 시간을 담은 작품이다. 이석준 감독이 연출을 맡아 BTS의 리더이자 솔로 아티스트, 인간 김남준이 품고 있는 고민을 풀어냈다.

K팝 소재 다큐멘터리 최초로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오픈 시네마 부문에 공식 초청돼 지난 7일 첫 상영을 마쳤다.

RM은 다큐멘터리 영화와 함께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영상물로 독창성을 인정받고 있다. 솔로 2집 타이틀곡 ‘로스트!’(LOST!) 뮤직비디오는 최근 독일 ‘2024 베를린 커머셜 어워즈’와 ‘시슬로페 페스티벌’, ‘영국 뮤직비디오 어워드 2024’ 등 해외 시상식에서 수상했다. /연합뉴스



잘못된 결혼? 옳고 다시 시작해!

MBC 새 일일드라마 ‘친절한 선주씨’ 11월 18일 첫 방송

MBC는 새 일일드라마 ‘친절한 선주씨(사진)’를 오는 18일부터 방송한다고 30일 밝혔다.

‘친절한 선주씨’는 잘못된 결혼을 때려 부수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여자 선주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다.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뽐낼 뚝뚝 주인공 피선주 역에는 심이영이 나선다. 아무진 생활력을 지닌 동네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피선주는 남편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지만, 남편의 배신으로 하루아침에 이혼당하게

되는 캐릭터다.

비슷한 상처를 안고 있는 건축가 김소우 역에는 송창의가 나선다. 피선주와 한 직장에서 동료로 함께 일하게 되면서 서서히 서로에 대한 마음을 키워간다.

드라마 ‘찬란한 내인생’을 집필한 서정 작가와 ‘모두 다 꿈따라’, ‘전생의 원수들’의 김홍동 감독, ‘마녀의 게임’, ‘세 번째 결혼’의 강태홍 감독이 의기투합했다. /연합뉴스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